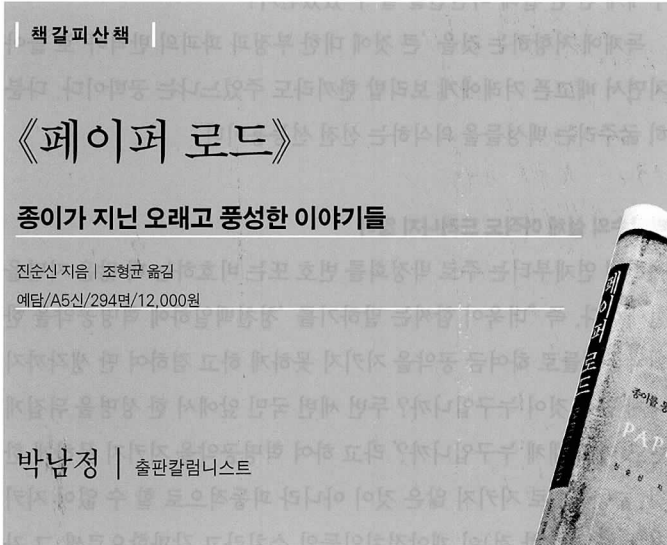


이 책은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종이의 역사를 되짚어본 역사 기행서다. 지은이는 동양에서 만들어진 종이 서양으로 전래된 경로를 실크 로드와 대응시켜 '페이퍼 로드'라 명명하고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페이퍼 로드의 이모저모를 밝혀나간다.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종이 중국에서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기까지 여정을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을 결합시켜 생생하게 보여준다.



'가설로 세운 구조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란 결국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진순신의 《페이퍼 로드》(예담)를 읽으면서 했다.

지은이는 동양에서 만들어진 종이 서양으로 전래된 경로를 실크 로드와 대응시켜 '페이퍼 로드'라 명명하고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페이퍼 로드의 이모저모를 밝혀나간다. 지은이의 페이퍼 로드 추적에 동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가설과 추론, 입증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종이에 대한 기존의 가설 뒤집어

지은이가 이 책의 틀거리로 삼은 핵심적인 가설 몇 가지. 첫째, 채륜은 정말 종이를 발명했는가? 채륜이 후한 화제(105년) 때 종이를 만들어 현상했다는 것은 정설로 굳어진 것. 최근 채륜의 종이제조 연도보다 150년이나 앞서는 종이 발견돼 이 설이 번복됐다. 지은이는 채륜의 종이 이전의 종이에 대한 기록들을 각종 사료를 통해 제시하고 종이보다 훨씬 앞서 사용됐던 삼베나 비단을 만드는 작업과정을 통해 '종이 이전의 종이'의 실체를 입증한다. 결국, 채륜은 이미 존재했던 종이의 질을 좀더 발전시키는 제지법을 개발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둘째,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군과 당군이 국경부근 탈라스에서 벌인 전투 후 포로로 잡혀간 당나라 사람 가운데 제지기술자가 있어서 제지법이 전파됐다? 이에 대해 지은이는 탈라스 전투가 제지법 전파의 기

점이 된다면 전쟁 이후 아바스 왕조가 번창해 종이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문명권이 형성됐기 때문이지 전쟁포로에 의해 제지법이 전파됐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고 말한다.

셋째, 서방세계 최초의 종이공방은 사마르칸트였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입장. 지은이는 고대 국가인 페르가모의 유적인 몬치크티페 유적에서 황인종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것 등 몇 가지 증거를 들어 페르가모와 당과의 각별했던 관계를 밝힘으로써 제지법 전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종이와 제지법의 서방전파와 관련한 나름의 견해들을 전개해나감에 지은이는 중국에서 사마르칸트로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를 거쳐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와 유럽으로까지 이어진 '페이퍼 로드'를 열어 보이고 있다.

종이에 대한 대하 역사소설 방불케 해

그렇다고 이 책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해 사실을 규명하려 든 딱딱한 역사서라 생각한다면 오해다. 대중적 역사저술가로서의 명망에 걸맞게 지은이는 오히려 드러난 역사적 사실 뒤에 숨겨져 있을 법한 무수한 이야기들을 흥미롭고도 생동감 있게 풀어내는 데 더 역점을 둔다. 그러기 위해 그는 역사서는 물론, 문학작품과 민요까지 들춰보는가 하면 종이와 관련된 유물 및 유적은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쿠데타와 반쿠데타로 이어지는 혼란 정국의 한복판에서 환관이란 신분으로 종이 제조법을 개발한 채륜의 삶도 만나게 되고, 탈라스 전투의 주역인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 장군, 일본으로의 종이 전파와 깊은 연관을 지닌 고구려 승려 담징과 백제 사람 왕인도 만난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마도 이슬람문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그 역할에 대한 것이지 싶다. 지은이는 종이의 서방전파가 활발해진 것은 《코란》을 읽는 이슬람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종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또한 중세 암흑의 시대,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미치지 않았던 이베리아 반도의 발전된 문화와 학술적 성과가 없었다면 르네상스가 과연 가능했겠느냐고도 한다.

이 책의 취재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지은이는 종이를 소재로 동서교역에 관한 소설을 써볼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만큼 종이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것이었기 때문 이리라. 너무 흔해서 발길에 채일 정도가 돼버린 종이. 그것이 지닌 놀랄 만큼 오래고 풍성하며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는 이미 대하 역사소설을 한편 읽고 난 느낌이다. 종이는 위대하다. 종이를 만든 인간 그리고 자연은 더 위대하다. ■